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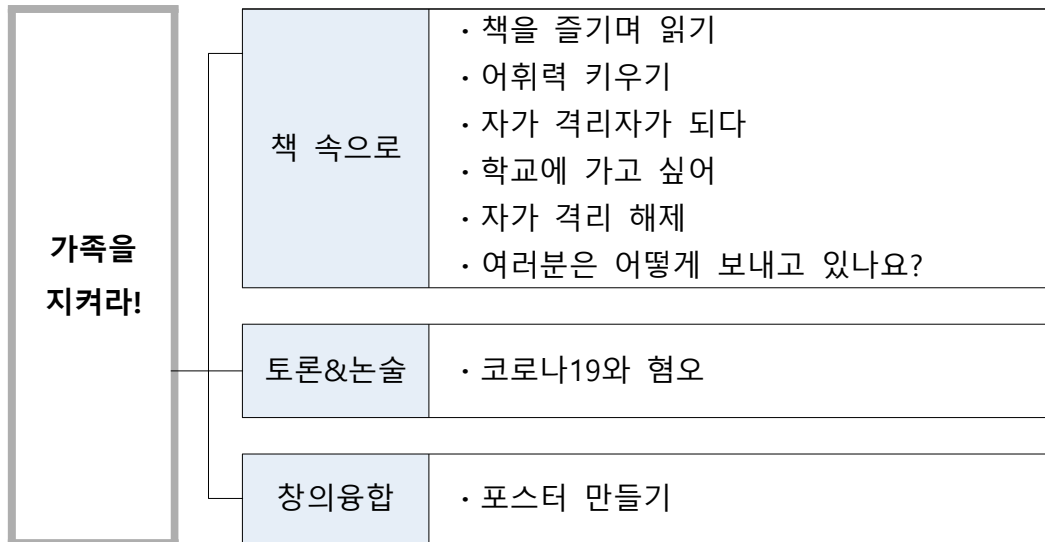
# 가족을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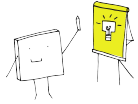
- \* 글 : 김바다
- \* 그림 : 국은오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60쪽
- \* 대상 : 초등학생

## · 책 소개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지우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도 외식도 한 지 오래였다. 그러다 막내 건우의 생일을 맞아 갈빗집에서 온 가족이 외식을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우네 옆 테이블의 한 손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나오는 바람에, 지우네 가족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지우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확진자가 나오면 어찌지 등 격리 시간 내내 두려움과 억울함이 반복되었다. 또, 집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답답하고 짜증까지 났다. 지우네 가족은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 · 주요 독후활동





##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가족을 지켜라!』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가족을 지켜라!』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가 격리 14일간의 생존 일기**  
**우리 모두 힘을 모았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 거지?”

“날 확진자로 의심하는 걸까?”

“내가 정말 확진자가 되면 어찌지? 내 친구들은, 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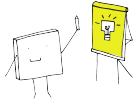
격리 시간 내내 반복되는

두려움과 억울함, 답답함을 잘 극복하며

지우네 가족은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 1) 책에는 어떤 가족이 나올 것 같나요? 그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 2) 지우 가족은 왜 두려움과 억울함,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 3)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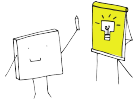
##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1. 『가족을 지켜라!』를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어휘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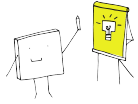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1. 『가족을 지켜라!』에 나오는 문장과 단어를 읽고,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는 사전에서 찾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단어	단어의 뜻은 뭘까?
① 나도 그게 <u>꺼림칙</u> 했어.	
② 건우가 좀 <u>진중해져서</u> 대답했다.	
③ 아빠는 <u>일광욕</u> 을 좀 해야겠어.	
④ 모두 국민들이 낸 <u>세금</u> 으로 사서 주는 거야.	

2. [보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자가 격리, 밀접 접촉자, 확진자, 감염, 구호 물품

- ① 자가 격리
- ② 밀접 접촉자
- ③ 확진자
- ④ 감염
- ⑤ 구호 물품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자가 격리자가 되다

(1~3) 『가족을 지켜라!』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어디서 감염이 되었대요?”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이 안 났다. 며칠 동안 나를 만난 친구들과 학교는 어떻게 될지 걱정부터 되었다.

“나흘 전, 건우 생일 날 고기 먹으러 간 초대식당에서 왔던 손님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대. 우리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했던 아저씨래.”

(나) 엄마가 하얀 쇼핑백을 주었다. 나는 훌쩍훌쩍 울면서 받았다. 쇼핑백 안에는 손 소독제, 소독용 에탄올, 종이 체온계, 마스크, 격리 통지서, 자가 격리 환자 생활 수칙, 의료용 폐기물 쓰레기봉투가 들어 있었다.

“자가 격리 환자래. 흑흑흑, 난 환자야!”

정말 자가 격리 환자가 된 느낌이였다.

-우리가 자가 격리 환자래요.

가족 특방에 글을 올렸다.

-환자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썼나 봐.

아빠가 또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기분 나쁘게 환자가 뭐예요? 자가 격리자라고 하면 될 텐데요.

건우도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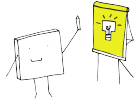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1. 지우의 가족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에서 지우와 건우가 ‘자가 격리 환자’라는 말에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가 격리 환자’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3. 지우의 가족은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조심했지만 밀접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에게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창에 올라온 비난의 말에 답글을 달아 주세요.

만날 놀러 다니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야! 다들 조심 좀 해!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학교에 가고 싶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지우야, 몸에 이상은 없지? 오늘 검사받았지? 결과는 언제 나온대?

선생님께 특이 왔다. 모두 물어보는 질문뿐이다. 오로지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궁금한가 보다. 하긴 내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확진자가 되면 학교는 폐쇄된다. 전교생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엄청 복잡해진다.

(나) 자가 격리 해제일이 6일 남았다. 오늘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시간을 먹는 새가 있다면 새들이 내 시간을 먹고 날아가서 내일에 가 있으면 좋겠다.

(다) “여보세요? 아, 네!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내 담당 공무원이었다. 휴대폰의 움직임이 두 시간이 지나도 없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 하지 않아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 다녀서 그래요.”

집 안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책상 위에 두고 다녔더니 움직임이 없다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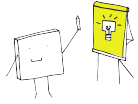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격리 해제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자가 격리가 너무 힘들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다 깬 내 목소리를 듣고 불안했나 보다.

1. (가)에서 지우는 확진자가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지우의 친구라면 이렇게 걱정하는 지우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2. 내가 지우라면 자가 격리 기간에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자가 격리 기간을 우울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우에게 알려 주세요.
3. 내가 자가 격리 상담사라면 어떻게 말해 주었을까요? 격리 상담사가 되어 지우의 가족을 상담해 주세요.

내담자	상담 내용	뭐라고 말해 주면 좋을까?
지우 아빠	일광욕을 하고 싶어요.	
지우 엄마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걱정이예요.	
지우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건우	뛰고 싶어요. 집은 너무 답답해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자가 격리 해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 아빠, 제가 흥분하고 화내서 죄송해요.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확진자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아서 예민해져서 그랬어요.

-우리 모두 갇혀 지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

아빠가 먼저 답글을 올렸다.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나는 다시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다.

-어려울 때 가족끼리는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해!

아빠는 우리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마다 잘 잡아준다.

-우리 가족은 인내하는 데 한계가 온 것 같아. 서로 조심하자!

엄마도 답글을 올렸다.

-건우야, 내가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랬나 봐. 미안해!

(나) -○○구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10월 21일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정상)입니다.

나는 특으로 선생님께 자가 격리 후 재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알려 드렸다.

-저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문자 왔어요.

-보건소에서 온 문자도 선생님께 보내 드렸다.

가족 특방에도 검사 결과를 알렸다.

-저도 음성이라요.

건우도 음성이라고 올라왔다.

-저, 오후에 학교 갈 거예요.

건우는 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엄마도 음성이라고 문자 왔어.

-아빠도 음성이야!

-우아, 자유다!

1. (가)에서의 지우의 기분과 (나)에서의 지우의 기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리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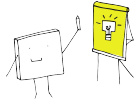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가)	(나)

2. (가)에서 지우의 가족은 서로를 다시 격려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가족에게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을 골라 어떻게 문자를 보내면 좋을지 적어 보세요.

---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코로나 블루’가 아닐지 검사해 보고, 우울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 블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코로나 블루 자가진단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 보세요.

-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된다
- 어떤 일에도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 잠을 자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자는 증상이 나타난다
- 지나치게 초조한 기분이 들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 자꾸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다
-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 사고력이나 집중력 저하되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감정이 지속된다
-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든다

※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우울증 자가진단기준 -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하지 않게 보내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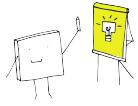
⇒

---



---





## 독서 후 토론&논술\_코로나19와 혐오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혐오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거세졌고, 해외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도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혐오는 묻지마 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 지역을 욕하는 등,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코로나 혐오’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 보세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혐오정서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유럽 등 서구권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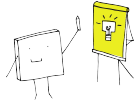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지인들이 길을 지나갈 때 일부러 앞에 와서 기침을 하거나 얼굴을 가린다”며 “지하철 좌석에 앉으면 일부러 다른 좌석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지나가거나 다른 아시아인들이 지나갈 때 사진을 찍으며 조롱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 도망가야 한다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동포 조세환 씨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독일인이 자전거를 타고가면서 나를 보고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외쳤다”며 “베를린에서 45년간 거주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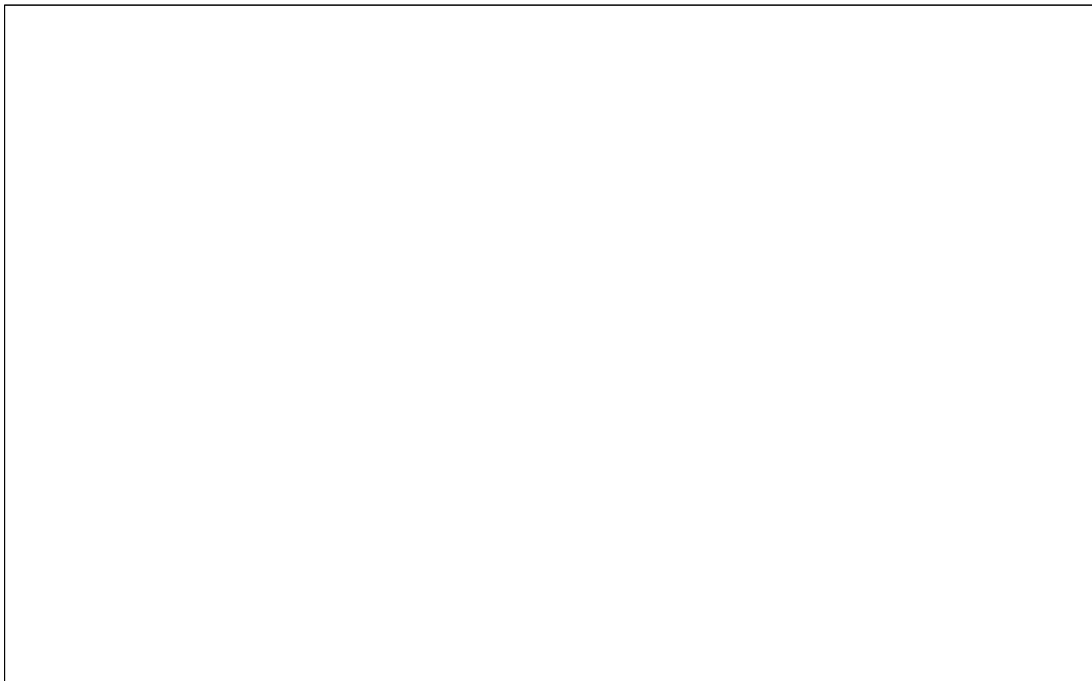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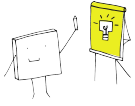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student response.



## 독서 후 창의융합\_ 포스터 만들기

※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지금, 개인 방역과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 등을 담은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우네 가족처럼 자가 격리자나 확진자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글을 쓰고,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 포스터를 완성해 보세요.





##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예시답안) 1. 예) 표지 그림은 코로나 검사를 해 주는 사람들을 그린 것 같다.          예) 예) 가장 크게 그려진 사람은 검사를 하느라 무척 피곤한 것 같다. 예)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2. 1)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어 14일 동안 격리하는 가족이 나올 것 같다. 2) 예시 답안) 진짜 코로나에 걸렸을까봐 두렵고,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할 것 같다. 또 집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했을 것 같다. 3) 예시 답안)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 계속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가족들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된다.</p>												
3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공감하는 내용</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공감하지 않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65쪽. 코로나 음성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었다.</td> <td style="vertical-align: top;">31쪽.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할아버지도 잘못 되었지만, 사람들 보이면 마스크를 쓰라는 지우의 말도 공감할 수 없었다. 마스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td>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상 깊은 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th>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102쪽. 친구들이 지우와 건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나였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td> <td style="vertical-align: top;">코로나에 걸리거나 밀접접촉자가 되는 건 그 사람의 탓이 아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td>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th> </tr> <tr> <td colspan="2" style="vertical-align: top;">53쪽. 코로나 확진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지우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나도 열이 나고 아팠을 때 코로나일까 봐 불안해했던 적이 있다.</td> </tr> </tbody> </table>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65쪽. 코로나 음성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었다.	31쪽.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할아버지도 잘못 되었지만, 사람들 보이면 마스크를 쓰라는 지우의 말도 공감할 수 없었다. 마스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102쪽. 친구들이 지우와 건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나였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밀접접촉자가 되는 건 그 사람의 탓이 아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53쪽. 코로나 확진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지우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나도 열이 나고 아팠을 때 코로나일까 봐 불안해했던 적이 있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65쪽. 코로나 음성이 나왔을 때 좋아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었다.	31쪽.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할아버지도 잘못 되었지만, 사람들 보이면 마스크를 쓰라는 지우의 말도 공감할 수 없었다. 마스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102쪽. 친구들이 지우와 건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의심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나였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밀접접촉자가 되는 건 그 사람의 탓이 아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53쪽. 코로나 확진자가 될까봐 걱정하는 지우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나도 열이 나고 아팠을 때 코로나일까 봐 불안해했던 적이 있다.													
4쪽	<p>1. (가이드) 아이들이 자기가 적은 단어의 뜻과 사전의 뜻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전은 기본형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꺼림칙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진중하다: 무게가 있고 점잖다.          *일광욕: 치료나 건강을 위하여 온몸을 드러내고 햇빛을 쬐. 또는 그런 일.          *세금: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p> <p>2. ① 자가 격리 ⇨ 예시 답안) 자가 격리 대상자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② 밀접 접촉자 ⇨ 예시 답안) 우리 가족이 밀접 접촉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③ 확진자 ⇨ 예시 답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④ 감염 ⇨ 예시 답안)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⑤ 구호 물품 ⇨ 예시 답안) 집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건소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 주었다.</p>												
5쪽	<p>1. 나흘 전에 외식했던 식당에서 옆 좌석에 앉았던 아저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저씨 가까이에 있었던 지우의 가족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다.</p>												

	<p>2. 예시 답안) 확진 판정도 받지 않았는데 ‘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잘못 된 것 같다. 확진 판정이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우의 말처럼 ‘자가 격리자’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그래도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p> <p>3. 예시 답안) 늘 조심하다가 한 번 나간 외출에서 걸릴 수도 있고, 회사에 가는 길에, 혹은 학교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모두가 놀러 다니다가 걸리는 게 아니니까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p>															
6쪽	<p>1. 예시 답안) 지우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네가 확진자가 되어서 나도 검사를 받게 되더라도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네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p> <p>2. 예시 답안) 좋아하는 만화책을 통째로 빌려서 읽는다. 또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낼 것 같다.</p> <p>3.</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담자</th> <th>상담 내용</th> <th>뭐라고 말해 주면 좋을까?</th> </tr> </thead> <tbody> <tr> <td>지우 아빠</td> <td>일광욕을 하고 싶어요.</td> <td>예시 답안) 대답하시겠지만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바깥에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td> </tr> <tr> <td>지우 엄마</td> <td>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걱정이예요.</td> <td>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격리가 끝나면 나갈 곳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td> </tr> <tr> <td>지우</td> <td>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td> <td>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 통화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친구들도 반가워할 거예요.</td> </tr> <tr> <td>건우</td> <td>뛰고 싶어요. 집은 너무 답답해요.</td> <td>집에서 뭘 수 없어서 답답하죠? 지금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며칠만 참으면 운동장에서 뭘 수 있을 거예요.</td> </tr> </tbody> </table>	내담자	상담 내용	뭐라고 말해 주면 좋을까?	지우 아빠	일광욕을 하고 싶어요.	예시 답안) 대답하시겠지만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바깥에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우 엄마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걱정이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격리가 끝나면 나갈 곳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지우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 통화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친구들도 반가워할 거예요.	건우	뛰고 싶어요. 집은 너무 답답해요.	집에서 뭘 수 없어서 답답하죠? 지금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며칠만 참으면 운동장에서 뭘 수 있을 거예요.
내담자	상담 내용	뭐라고 말해 주면 좋을까?														
지우 아빠	일광욕을 하고 싶어요.	예시 답안) 대답하시겠지만 베란다에서 일광욕을 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바깥에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지우 엄마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걱정이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격리가 끝나면 나갈 곳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지우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 통화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친구들도 반가워할 거예요.														
건우	뛰고 싶어요. 집은 너무 답답해요.	집에서 뭘 수 없어서 답답하죠? 지금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며칠만 참으면 운동장에서 뭘 수 있을 거예요.														
7쪽	<p>1.</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th> <th>(나)</th> </tr> </thead> <tbody> <tr> <td>⇒ 격리하느라 답답하고, 예민해져 있다. 예민한 마음에 화를 낸 것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해한다.</td> <td>⇒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가 끝날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다.</td> </tr> </tbody> </table> <p>2. 예시 답안) 엄마, 자꾸 짜증을 내서 죄송해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랬어요. 저도 엄마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p>	(가)	(나)	⇒ 격리하느라 답답하고, 예민해져 있다. 예민한 마음에 화를 낸 것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해한다.	⇒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가 끝날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다.											
(가)	(나)															
⇒ 격리하느라 답답하고, 예민해져 있다. 예민한 마음에 화를 낸 것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해한다.	⇒ 음성을 확인하고, 격리가 끝날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다.															
8쪽	<p>예시 답안)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며 보낸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영상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한다.</p>															
9쪽	<p>1. (생략) 가이드) 혐오가 왜 시작되었는지, 혐오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 보고, 혐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생각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p>															
10쪽	<p>(생략) 가이드)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에 대한 ‘혐오’ 현상에 대해 알려 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말이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등을 담도록 지도해 주세요.</p>															